

장성군, 2021년 '새로운 장성' 만들기 본격 가동

'엘로우시티' 지속 성장 위한 지역 활력 회복 등 신규 시책 135건 발굴 코로나 선제적 대응 무인관광안내시스템·농촌버스 비대면 체크기 도입

장성군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135건을 발굴하고 새로운 장성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성군은 7일 제2차 2021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신규시책 135건을 채택했다. 내년도 신규시책은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색채마케팅 '엘로우시티' 장성의 역점사업(38건)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활력회복 시책(35건), 중앙부처·전남도 공모사업 관련(23건) 및 기타 현안(39건) 등이다. 장성군은 엘로우시티 장성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황룡강 국가정원 지정 목표) ▲엘로우시티 색채디자인 건물번호판 설치 ▲노란예술센터 설립 ▲황룡강변 인공폭포 조성 등의 사업을 계획했다. 농업 분야는 ▲농협장성물류센터 내 공공급식센터 건립 ▲광주권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과, 체리 재배단지 육성 ▲시설채소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시설원예하우스 지

도 제작 등을 통해 발전기반을 확고히 다진다. 아울러 350억원 규모 국책사업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의 유치로, 대한민국 미래 농업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된 장성군은 신소득 아열대작물 발굴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한다.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장성형 뉴딜정책 반영을 위한 ▲지능형 관제센터 구축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 구축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고품질 공간정보 DB 구축 ▲비대면 관광을 위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장성아카데미 온라인 운영 ▲농촌버스에 비대면 스마트체크 장비 도입 등의 시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장성군청년센터 조성 ▲숨은 군민찾기 활동(전입 유도 장려) ▲폐업공장 새주인 찾아주기 ▲'힘내라' 청년푸드창업 육성 시범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해 인구 소멸에 대비하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한다.



장성군은 7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2차 2021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갖고 엘로우시티 역점사업 등 135건의 내년도 신규시책을 채택했다. <장성군 제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성 필암서원의 선비 문화 세계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선정으로 군비 포함 3년간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장성군은 필암서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소방서 개소

소방대원 161명·소방차 28대 배치

장흥소방서가 7일 문을 열고 화재 진화와 구급·구난 업무를 시작했다. 장흥소방서는 장흥읍 원도리 215번지 8004㎡ 부지에 총 3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했다. 연면적 1708㎡의 지상 2층 규모로 총 9개월의 사업 기간을 거쳤다. 1층에는 소방차고·공기호흡기 충전실·대기실·휴게실·식당 등이 배치됐으며, 2층에는 사무실·회의실·교육장 등을 갖췄다. 소방공무원 161명·의용소방대원 517명·소방차량 28대가 배치되며, 3과·2 안전센터·1 구조대·4 구급대·3 지역대로 조직을 갖췄다. 장흥지역 3개 읍 7개 면 281개 리의 소방대상물 1290곳과 3만7839명의 장흥군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장흥소방서가 관할했던 장흥군에 소방서가 새로 들어서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신속한 소방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재운 전남소방본부장은 "지역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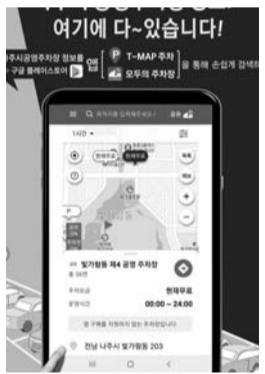
화순지역 호우 피해 대학생등에 유당문화재단, 2천만원 장학금

유당문화재단(이사장 최재훈)은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본 기구와 형편이 어려운 기구의 대학생 22명에게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사진> 지난 6일 화순군청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 참석한 최재훈 유당문화재단 이사장은 "한 사람의 훌륭한 인물이 세상을 바꾼다"며 "장학금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고향 발전에 이바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충근 화순군수는 "유당문화재단 창립자인 최상욱 남화도건 회장과 최재훈 유당문화재단 이사장의 지역 사랑과 후배들에 대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꿈을 이뤘는데 우리 군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화순 출신으로 남화도건의 창업자인 최상욱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유당문화재단은 매년 화순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40명에게 장학금 3억8100만원을 지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공영주차장 정보 여기에 다~ 있습니다

'T-map 주차'·'모두의 주차장' 앱 검색 서비스 제공

나주시가 공영주차장 안내 앱을 활용해 신속한 주차 질서 확립에 나선다. 나주시는 공영주차장안내 스마트화 작업을 통해 주차 관련 앱(App) 'T-map 주차'와 '모두의 주차장' <사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나주시 관내 공영주차장은 54개소에 총 2607면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해당 앱을 활용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인근 주차장의 이용료, 주차가능 대수 등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희망 목적지에서 가까운 주차장을 찾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T-map 주차' 또는 '모두의 주차장'을 내려 받아 위치 서비스를 켜 후 목적지를 입력하면 된다. 나주시는 그동안 공영주차장 정보를 시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왔는데 정보 접근성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주차장 정보를 손쉽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운전자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농익은 가을 대추 7일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한 농가에서 빨갛게 익은 생대추 수확 작업이 한창이다. 함평군은 2017년부터 대추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9ha의 개량 비가림 사업 등을 지원해 약 20ha 규모의 대추 생산 기반을 조성했다. <함평군 제공>

담양군·청년정책협의체·기업 협약...인구늘리기 본격화

담양군과 청년정책협의체는 7일 관내 기업체 4곳과 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협의체는 지난달 16일 1호 협약을 체결한 후 금성농공단지 입주업체 4곳과 협약을 체결해 '담양쌀 주조갯기 운동' 분위기 확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경향산업, 태성전기, 세아푸드, 한남산업은 인구감소 문제를 지역의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앞으로 청년정책협의체는 관내 기관단체와 기업 소속 직원의 주소 이전 독려, 담양 거주 미전입자 주소 갯기 운동 추진, 각종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 협조 등 민간 부문에서 범군민 운동을 전개한다. 기업체는 직원 내 직장 주소갯기 운동 동참과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 홍보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인구정책 홍보와 인구 늘리기 정책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과 함께 기관·단체의 인구늘리기 추진사업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